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sup>7</sup>  
A01G 9/02

(45) 공고일자 2005년03월11일  
(11) 등록번호 20-0375605  
(24) 등록일자 2005년02월01일

(21) 출원번호 20-2004-0032293  
(22) 출원일자 2004년11월15일

(73) 실용신안권자 문두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29-2

문지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29-2

(72) 고안자 문지영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9-2

문두영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9-2

기초적요건 심사관 : 최준영

(54) 다양한 가지화분이 있는 기둥화분

요약

본 고안은 여러 개의 다양한 화분들이 수직·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기둥화분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화분은 심고자하는 나무의 뿌리가 담길 수 있을 정도의 깊이(높이)의 벽체를 가지고 있지만, 본 고안은 도2 처럼 화분의 벽체를 모화분(2)의 화분바닥(3)이 있는 곳에서 끝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아래로 연장하여 기둥(1)을 형성하고, 나무의 기둥에 가지가 뻗듯이 기둥(1)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을 여러 개 형성하여 좁은 면적에 많은 화분의 식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모화분, 가지화분, 여과필터, 배수토출관, 배수호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사시도.

도2는 도1의 단면도.

도3은 본 고안의 기둥이 너무 길어, 작업의 편의상, 이등분되었을 때 다시 결합되는 부분의 사시도.

도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표현한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기둥 2. 모화분 3. 화분바다
- 4. 가지화분 5. 배수호스 6. 배수집결관
- 7. 배수토출관 8. 움직임방지대 9. 끼임턱
- 10. 여과필터 11. 인조잔디 12. 식물
- 13. 종래의 일반화분 14. 가는기둥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은 대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조차 작은 화분에 옮겨 심고서 그들이 사는 좁은 실내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고, 화분 설치면적은 화분 크기 그 자체가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므로 많은 화분을 실내에 둘 수 없는 처지이고 그러한 현실은 본 고안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종래의 화분은, 네모나 세모 또는 원형처럼 식물의 뿌리가 담기는 그릇의 모양만 차이가 있었을 뿐 한 화분에 한 그릇의 식물만을 심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뿌리가 담기는 공간이 하나 밖에 필요 없었다.

그러나 본 고안은 본 고안의 상층부에 있는 모화분(2)의 벽체를 모화분의 화분바다(3)이 있는 곳에서 중단하지 않고 아래로 계속 연장하여 기둥(1)을 형성하였고, 나무의 기둥에 가지가 뻗듯이, 기둥(1)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을 여러 개 형성하여 좁은 면적에서 많은 화분의 식물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2에서 보듯이 각 화분의 바닥부분에는 화분에서 흘러나오는 흙이 배수호스(5)와 배수토출관(7)을 막지 못하도록 여과필터(10)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배수호스(5)를 움푹 파인 그릇 모양의 배수집결관(6)까지 연결하여 식물이 섭취하고 남은 물을 배수토출관(7)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취하여 원활하고 깨끗한 화분 물주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흙같이처럼 원활한 화분 관리를 위하여 본 고안의 화분(2)(4) 속에 종래의 일반화분(13)을 통째로 넣고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다.

본 고안은 바닥면에 비하여 높이가 높으므로 쉽게 넘어질 소지가 많지만 움직임방지대(8)를 기둥(1)의 제일 아래 부분에 고정시키고 그 속에 무거운 금속이나 흙을 채워 넣어 기둥화분 전체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기둥(1)이 너무 길어 운반하기가 힘들 경우 기둥을 2개 이상 나누어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리하는 윗부분의 하단에 도3처럼 끼임턱(9)을 주어 시공현장에서 아래 기둥의 윗부분에 끼우는 것으로 본 고안의 기둥(1)은 완성되며, 본 고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도4처럼 기둥(1)을 모화분(2)의 벽체 굵기보다 가늘게 형성하고 그 가는기둥(14)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을 둘 수도 있다.

그리고 본 고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 인조잔디(11)를 입히거나 토피어리처럼 이끼를 입힐 수도 있는 본 고안은 실내의 나쁜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실내에 둘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내의 분위기를까지 환경친화적으로 꾸밀 수 있어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유익한 고안이라 하겠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좁은 실내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식물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안출된 본 고안은, 종래의 화분 한 개가 차지하였던 면적에 여러 개의 화분들이 위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분은 여러 개이지만 배수토출관(7)을 하나로 하여 화분 관리를 한결 편리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식물들을 좁은 실내로 옮겨와 환경친화적인 실내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과 함께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사시도로서, 본 고안의 화분(2)(4)에 식물(12)이 심겨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였다.

도2는 도1의 단면도로서, 모화분(2)과 가지화분(4)의 화분바다(3)위에는 여과필터(10)를 깔고 아래에는 배수호스(5)를 연결하여 아래의 움푹 파인 그릇 모양의 배수집결관(6)에 까지 설치하여 모화분과 가지화분에서 나오는 토출수가 배수토출관(7)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면이다. 도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1의 식물 표현은 생략하였다.

기둥(1)의 높이가 낮으면 가지화분(4)의 개수가 줄어들고 기둥(1)의 높이가 높으면 가지화분(4)의 개수가 많아지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3은 본 고안의 기둥(1)이 너무 길어, 운송에 애로를 겪을 때, 기둥을 이등분하여 생산하였다가 시공현장에서 다시 결합할 수 있는데, 이때 윗 기둥의 아래 부분을 그려본 사시도로서, 끼임턱(9)의 설치로 윗 기둥이 아래 기둥의 윗 부분에 끼워져 없힐 수 있는 구조를 알 수 있다.

도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표현한 사시도로서, 본 고안의 기둥(1)을 모화분(2)의 화분바닥(3)에서 모화분의 벽체 굽기보다 가늘게 아래로 연장하고 가는기둥(14)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들을 여러 개 형성하여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고안의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종래에는 하나의 화분 밖에 놓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 많은 화분들을 설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식물들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성과 혜택을 늘어나는 화분 숫자만큼의 배수로 누릴 수 있으며, 실내의 바닥에서 천정까지 조밀하게 분포된 화분의 식물들은 실내의 분위기를 한결 포근하게 만들어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무나 합성수지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기둥화분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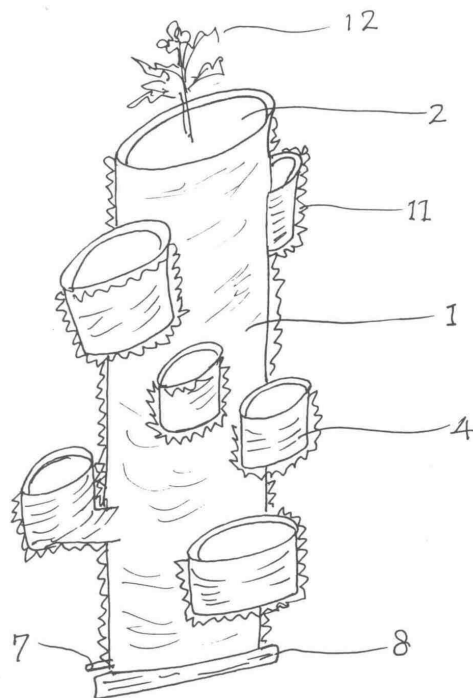
모화분(2)의 화분바닥(3)이 있는 곳에서 화분의 벽체가 아래로 연장되어 기둥(1)을 형성하고 기둥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을 여러 개 형성한 기둥화분.

**청구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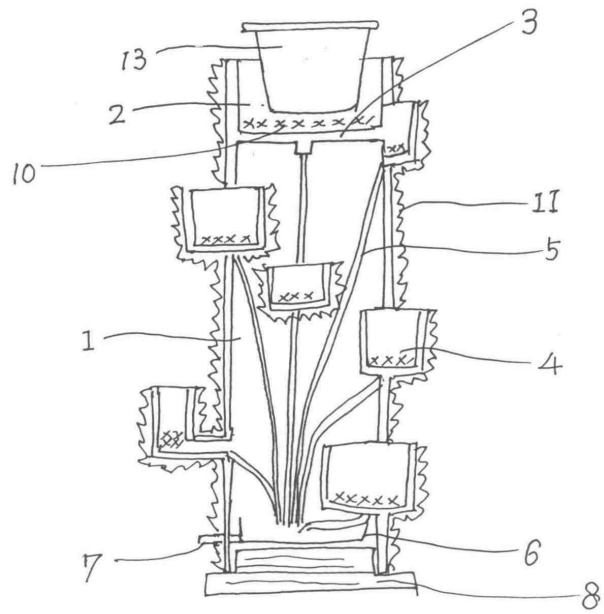
모화분(2)의 화분바닥(3)에서 모화분의 벽체 굽기보다 가늘게 기둥을 아래로 연장하고 그 가는기둥(14)의 요소요소에 가지화분(4)들을 여러 개 형성한 기둥화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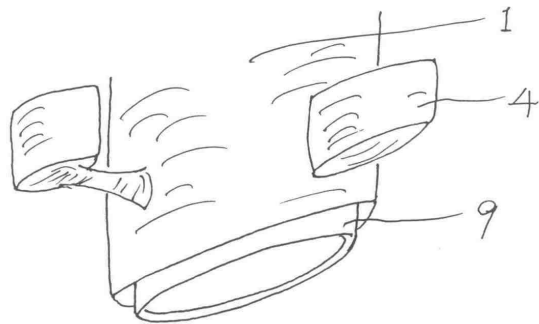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